

쉬바의 강림과 경제적인 화신들

오늘 트리멀티 아버지 쉬바가 그의 지극히 사랑스럽고 다정한 살리그램 자녀들을 만나러 왔다. 오늘은 쉬바와 살리그램들의 특별한 날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만나 그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다. 왜냐? 그것은 전체 칼파를 통틀어서 이 생일이 가장 독특하고도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칼파를 통틀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생일을 축하할 수가 없다. 자녀들과 아버지의 생일이 같은 순간에 일어난 적이 어느 때도 없었다. 이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는 다른 어떤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에게 수-수-수백만 번의 인사를 보낸다. 모든 자녀들이 암리트 벨라에서부터 많은 사랑을 가지고 가슴으로부터 보내는 인사가 밥다다에게 와 닿았다. 이렇게 많은 살리그램 자녀들을 보니 밥다다는 가슴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와! 와,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 와, 와, 사랑스러운 자녀들! 와! 와, 알로키 생일을 축하하는 자녀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 각자에 대해 “와, 와!” 하며 노래한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영혼들 중에서 너희 소수의 자녀들만이 수백만 배의 행운을 얻었고 미래에도 또한 행운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행운은 반 사이클 동안 불멸하게 남을 것이다. 이 축복은 단지 한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러 생을 위해 이 불멸의 축복을 받았다. 너희 자녀들은 어느 정도로 자아존중을 의식하고 있는가? 너희 자녀들이 이 알로키 생에 태어나자 마자 바바는 너희의 알로키 생일을 위해 무한한 유산을 준다. 너희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바바는 너희들 각자에게 고귀한 의식의 톨락을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도 그 톨락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의 브라민 삶이니 그 톨락은 불멸한다. 너희 브라민들의 이마 위의 톨락은 고귀한 행운의 상징이다.

여기 있는 너희 모든 자녀들뿐 아니라 멀리 앉아 있는 자녀들 모두가 대단한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이 사랑스럽고 독특한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를 축하한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희의 생일을 축하하니 너희들 모두가 행복하고, 너희가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니 아버지도 행복하다. 너희들은 모두 참으로 행복하다! 너희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잴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너희의 알로키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없다.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바다만큼 큰 행복을 느끼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뭐라 말하겠느냐? 바다는 너희의 행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아차, 너희의 행복은 하늘만큼 높으냐? 너희의 고향과 서틀 리전은 하늘 저 너머에 있다. 따라서 너희의 행복을 측정할 도구는 없고 그것을 잴 수 있는 도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너희는 것처럼 많은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 한 손으로 손뼉을 쳐라. (모두가 박수를 쳤다.) 너희들 모두가 그런 행복을 느낀다고 손을 들었다. 그러니 축하한다! 그러면 둘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 모두 그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미소지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가, 절반만 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꽃핀 영적인 장미가 된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은 끊임없이 완전하게 피어있어야 한다. 완전히 핀 꽃은 참으로 사랑스럽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즐겁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약간만이라도 시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치워버린다. 밥다다는 너희들을 옆으로 제쳐두지 않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자신을 한쪽으로 제쳐놓는다.

오늘은 축하를 하는 날이다, 그렇지 않느냐? 멀리는 어차피 너희가 항상 듣는다. 오늘 너희들은 큰 행복에 겨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다. 발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춤추어라! 만일 너희가 신체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춤을 추고 있고, 또한 지극히 다정한 아버지와 너희 자신의 알로키 찬양을 칭송하는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너희의 마음의 소리가 밥다다에게 와 닿는다. 그 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오고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있고 아버지는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말한다: 이봐라, 세상의 가장 사랑스런 자녀들아, 너희가 원하는 만큼 노래하고 춤춰라! 그 밖에 너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브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요가를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나? 그것이 힘든 일이나? 요가를 한다는 것은 영혼들이 지고의 영혼인 신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행복 속에 춤춘다. 너희의 가슴은 아버지에게 다정한 칭송의 노래를 자동적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너희 브라민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그저 계속 노래하고 춤춘다. 이것이 어려우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자들

은 손을 들어봐라! 지금은 노래하고 춤추는 계절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노래하고 춤춰라! 그것은 쉽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쉬우면 적어도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여봐라.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쉬운 것에서 일부러 멀어져서는 그걸 바꿔서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고, 아주 쉽다. 아버지는 반 사이클 동안 너희가 살았던 생들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것이 아주 쉽다! 여기 누구라도 어렵다고 느끼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때때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지식의 길은 어렵지 않다. 너희들은 브라민이 아니라 전사들이 되는데, 전사들이 하는 일은 싸우고 언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힘이 들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투쟁하기는 어렵고, 기쁨으로 축하하는 일은 아주 쉽다.

이중 외국인들은 기쁨으로 축하하는 자들이다. 한 손으로 손뼉을 쳐라!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즐기고 있느냐? 너희가 집에 돌아갔을 때 혼란스러워지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보아라, 오늘의 쉬브 자안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 날에 단식을 한다. 이중 외국인들은 오늘을 그런 식으로 축하할 필요가 없다. 바라트 사람들만이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하고, 따라서 이 날의 중요성 때문에 그들은 단식을 하고, 둘째로는 그들이 밤새도록 깨어 있다. 너희들은 모두 단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가 한 맹세를 확고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확고하고 때로는 미약하냐? 너희들은 뭐든 익지 않은 것을 좋아하느냐? 너희들은 잘 익은 것만 좋아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맹세를 했느냐? 바바가 너희들에게 하게 만든 첫 맹세가 무엇이나? 너희에게 의식의 틸락이 찍혔을 때 너희가 처음에 한 맹세가 무엇이나? 그것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완전히 순수해진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자마자 너희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순수성의 맹세는 단지 독신(브라마차리)의 맹세에 그치지 않고 브라마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브람차리(독신)와 브라마차리(브라마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 순수성의 파동이 너희가 하는 모든 말에 깃들여 있게 해라.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에 순수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채워져 있게 해라. 매 행위마다 카르마와 요가가 있게 해라, 즉 카르마 요기로서의 경험이 있게 해라. 이것이 브라마차리가 의미하는 바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가 한 모든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이었는가를 보았다. 그는 어떤 평범한 말도 결코 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생도 역시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알로키(영적)이다. 알로키가 된다는 것은 순수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일 밤 자신의 선생이 되어서 스스로를 점검하여 퍼센티지로 점수를 매겨라. 너희는 100%가 되어야 한다. 매일 너희 자신을 보아라; 남들을 보지 말아라! 밥다다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대신에 남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여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퍼센티지를 보아라.

너희는 금년에 모든 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너희가 하는 모든 행사에서 너희들은 내적 변화에 관해 말했다. 어디에서 강연을 했든 너희들은 내적 변화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강연을 했다. 금년에 봉사 분야에서 너희들은 남들에게 내적 변화의 목표를 주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밥다다는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 너희 안에 몇 퍼센트나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적 변화가 하강단계가 아니라 상승단계로 변화하고 있게 해라.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차트를 본다. 너희들은 아마도 바바가 과연 모든 이의 차트를 보는지 아니면 몇몇 특별한 자녀들만 보는지 궁금할 것이다. 밥다다는 때로는 모든 자녀들의 차트를 본다. 매일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차트를 보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온 자녀나 빨리 나아가는 자녀의 것이다. 너희들은 웃고 있는데, 그러면 밥다다가 너희의 차트가 어떤지를 너희에게 말해줄까?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므로 바바는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러나 바바는 너희에게 앞으로는 너희가 이 날과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오늘은 너희의 단식을 유지하는, 즉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갖는, 날이며 때다. 참된 신봉자는 결코 자신의 맹세를 어기지 않는다. 밥다다는 다시 한 번 너희 자녀들에게 지금도 생각의 힘이라는 너희의 첫 바탕이 때때로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부정적인 생각은 낭비적인 생각보다는 아주 약간 적다. 너희 자신과 세상을 위해 원하는 만큼 많이 너희의 생각의 힘을 늘려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각은 말과 행동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의 힘을 변화시켜라. 낭비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변모시켜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라. 밥다다는 생각의 보물

을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긴다. 따라서 생각의 보물에 대해 경제성의 화신이 되어라. 오늘은 ‘강림의 날’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에 대한 밥다다의 순수한 소망은 오늘이 쉬바의 탄생일인 것과 더불어 너희들도 모두 경제성의 화신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에서 경제적이 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보물들도 저축할 것이다. 199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1999년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에 너희는 199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었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났느냐? 지금은 벌써 2월이다.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나?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느냐? 너희들은 두려우냐? 너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우냐?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그저 두려움 없이 명랑하게 드라마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드라마에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피도 또한 보여준다. 그들은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싸움도 보여준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 드라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될까 의아해 하느냐? 너희들은 그저 앉아서 계속 드라마를 구경하는 것을 즐기지만 한다. 이것도 역시 무한한 연극이다. 만일 너희가 조금이라도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던가 일이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런 단계에 있는 자들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보이면 너희들은 좋은 단계를 가질 것이고, 연극에 무언가가 잘 못 된 것이 보이면 너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내면에 격동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1999년이든 2000년이든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나? 게임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고, 그저 구경하며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해 하면서 언짢아하지 말아라. 너희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 모든 이가 199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다. 밥다다는 말한다: 너희들은 모두 자연 원소들에게 모든 것을 청소하는 일을 맡겼다. 너희는 자연에게 긴 빗자루를 주어서 모든 것을 청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자연은 너희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청소할 텐데, 너희들은 왜 흔들리느냐? 그 명령을 한 것은 너희들이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고 부동해져서 너희의 마음과 지각을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어라. 너희 자신을 흔들림 없고 부동한 단계에 안정시켜라. 계속 자연의 게임을 구경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범하지 않고, 알로키이다. 중요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독특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영혼들은, 그저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세계에 유익을 주는 과업에 계속 바쁘게 지낸다. 만일 마음과 지각을 방치해둔다면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마음과 지각을 등대로 만들어 그 빗을 퍼트리는 일에 바빠지면, 너희들 바쁜 영혼들은 결코 두려움을 느낄 시간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초연한 관찰자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격동이 일어나더라도 너희의 지각이 끊임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다. 너희의 지각이 “무엇이?” 또는 “왜?” 같은 의문으로 가득 차거나 바빠지게 하지 말아라. 지각을 비워라! 단지 “한 분의 바바와 나”이다. 그러면 때에 의해서 편지나 전화, TV 또는 다른 어떤 통신 수단도 작동이 안 된다 해도 너희들은 밥다다의 지시를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과학의 도구들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되 너희 삶이 그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너희들은 과학의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있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침묵의 힘이라는 편의시설은 아주 명확하고 신속하게 작동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각의 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알겠느냐? 너희들은 황금시대가 빨리 오도록 부르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황금시대에는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이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아주 잘 청소해줄 것이다.

오늘은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갖는 날이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 속에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경제성의 화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일상행동의 경제성이다. 둘째로는 너희의 지각을 끊임없이 명료하게 유지해라. 이것이 밥다다가 주님은 정직한 마음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다.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현재는 정직함과 깨끗함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 속의 정직함, 가족과의 정직함, 그리고 아버지와의 정직함. 알겠느냐? 바바는 오늘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을 했다! 밥다다는 너희를 몹시 사랑하고, 따라서 그는 너희 안의 약간의 약점조차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밥다다는 끊임없이 모든 자녀들이 그 자신과 같이 완전한 것을 보고 싶다.

곳곳에 격동이 일고 있다. 자연의 모든 원소들이 곳곳에서 대단한 격동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한 곳

도 이 격동이 없는 곳이 없다. 사람들의 격동이 있고 또한 자연의 격동이 있다. 이 세상의 곳곳에 그렇게 격동이 일어날 때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때에 너희의 안전의 수단은 무엇이겠느냐?

너희 자신을 1초 만에 비데히(몸 없는 상태로), 아샤리리(몸이 없이)가 되어 영혼을 의식하게 만들면 그때는 너희가 격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않겠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것을 시도해봐라. 너희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너희의 마음과 지각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바바께서 연습을 시켰다). 이것이 사드나(영적인 노력)라는 것이다. 앗차.

아버지의 사랑에 잠겨있는 이 땅과 외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브라마차리의 단계에 자신을 안정시키는 사랑이 넘치고 협조적인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한 분에게 속하며 하는 모든 일에 경제성을 유지하는 용기 있는 자녀들에게, 격동 중에도 흔들림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즐겁게 축하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가까이 머무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미묘하거나 강한 굴레들을 가위표로 지워버리고 너희의 요그육트한 단계로 굴레에서 자유로워져라.

요그육트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굴레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너희가 요그육트해지는 데서 제일 큰 최종의 굴레는 너희 자신을 지각 있다고 생각하며 제 자신의 지각이 만든 경이로움을 슈리마트라 여기는 것, 즉 너희들 자신의 지각과 슈리마트를 뒤섞는 것이다. 이것을 지각의 교만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누군가 너희의 약점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때, 즉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만일 아주 조금이라도 낭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굴레다. 너희가 이런 굴레들에 가위표를 해서 지워버리고 승리와 패배, 칭송과 비방에 대해 평정한 단계를 만든다면 그럴 때 너희는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슬로건: 먼저 생각한 뒤에 그것을 행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영혼의 미덕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